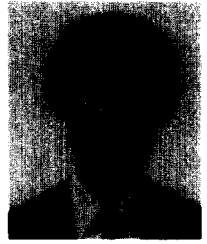


# 국내 박사과정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국과학기술원 유전공학센터

생물제어연구실 선임연구원

박 승 환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피땀흘려 노력한 많은 사람들의 덕택에 비로소 지난 해에 무역흑자라는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도 잘살게 되었구나 라는 안도감보다는 이러한 흑자상태를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과 더불어 이제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발전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앞섰다. 근래 물질특허제도 도입에 따라 밖으로 부터 밀려오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또 한단계의 도약을 위해 한번은 겪어야 할 필연적인 과제이며 따라서 적극적·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리라 생각한다. 근래 이에대해 많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사람 키우는 일"이 문제해결의 바탕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일과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술을 축적하는 일이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성급한 나머지 수십년 자란 나무를 일시에 옮겨심는 식의 임시 방편적인 처방은 가능한한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에 국내에서 학위를 마친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본인이 몸담았던 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 및 국내 여러대학의 이·공 분야 박사과정에 대해 느꼈던 점을 솔직히 토로 함으로써 국내 박사과정 활성화를 모색하는 일에 일조가 되고자 한다.

국내 대학에 대학원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된 언론에 비해 박사학위 소지자가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년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 학생을 지도할 교수진의 부족과 연구시설의 미흡

그리고 축적된 연구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 또는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후 해외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고 아직도 그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해외에서 학위를 마친 후 풍부한 지식과 연구경험을 가지고 돌아온 많은 분들의 덕택으로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가 활성화되고 후학들이 더 나은 배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때가 된것 같다. 언제까지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에서 기초를 다진후 학위과정을 위해 해외로 빠져 나가는 현상을 방지할 것인가?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재 국내 대학원의 박사과정은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들여 교육시키기에 부족하기만 한 것인가? 부족하다면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석사학위를 마치고 국내 여러 연구소에서 활발히 연구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해외로 유학을 떠남으로써 연구소의 연구활동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기술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벌써 부터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다. 또한 이들이 학위를 하기위해 외국에서 보내는 기간(박사학위 3-6년, Post Doc.을 할 경우 5-8년) 동안, 이 기간이 누구에게 있어서나 가장 활발한 연구활동 기간일진대, 결과적으로 외국대학의 연구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 국내에서 다시 연구활동을 시작할 때 외국연구실과의 차이-연구실 운영방식의 차이나 시설의 차이 등에서 심한 진통을 겪게 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 연구의욕을 크게 상실할 수 있다는 점도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이 개인의 입장이 아닌 전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긴 하나 여하튼 다수의 우수한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은 시급히 줄여

가야 한다. 물론 그 해결책은 이들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국내 박사과정을 활성화시키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 몇년사이 국내 여러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몇몇 학교는 외국대학 못지않게 그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내 박사과정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있어 교수진부족, 연구시설 및 연구비부족, 축적된 연구경험부족,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후생복지 및 학위후의 대우 등이 여전히 문제로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들 각각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교수진 부족문제

학생수에 비해 교수 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 교수가 한학기에 2-3과목 많으면 4-5과목을 개설한다는 사실도 다 알고있는 바이다. 이런 상태에서 대학원교육이 원활하게 유지되어 세계적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대학원 학생에 대한 강의가 학부학생 강의와는 차원이 달라야 할 것이고 그러자면 교수가 자기의 주 전공을 집약적으로 강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더 욕심을 낸다면 한 과목을 세분해서 여러사람이 강의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교수를 확보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다른 방향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의 두가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는 대학간의 활발한 교류이다. 타학교의 교수를 적극 초빙하여 그의 전공분야를 학생들에게 강의하게 함으로써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국내 연구인력의 최대한 활용이다. 근래 정부 출연연구소 및 일반 기업연구소의 발전에 따라 많은 우수인력이 확보되고 있다. 이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전공분야를 갖고 있는 바 이러한 연구인력을 교수요원으로 활용한다면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이미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다.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서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제안을 한 것이다.

### 2. 연구시설 및 연구비 지원문제

지난 수년간 정부와 학교당국이 연구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연구시설이 빈약했던 지방의 대학들도 이제 값비싼 기기들을 장만하였고 연구실 모습도 어느정도 갖추어졌다. 그러나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세계수준과는 거리가 멀고 특히 연구시설을 어느정도나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면 더욱 그러하다. 연구시설을 원활히 가동할 수 있을 만큼의 지속적인 연구비 지원이 없으면 애써 마련한 기기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정부나 산업체는 근시안적 판단내지는 당장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좀더 먼 장래를 위해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3. 축적된 연구경험의 부족문제

연구실 나름대로의 전통을 수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2-3년이 멀다하고 연구테에마를 바꾸는 연구실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고 경험이 축적될 수 없으며 그런 연구실에서 배운 학생이 깊이있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이다.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만한 좋은 연구분야를 개발하는 자체의 노력이 앞서야겠지만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쪽의 결정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연구영역을 지키지 못하고 해바라기처럼 연구비를 따라다니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외국 연구실의 경우 10년이 넘도록 한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며 그런 연구실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옴을 익히 알고 있다. 이제 국내 대학의 연구실에서도 나름대로의 독특한 연구분야를 개척하여 전통을 세우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급히 응용쪽 연구에만 눈을 돌리지 말고 기초학문에도 많은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